

# 2023년 설 명절 가정예배

“설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를 지켜주신  
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 
다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드리겠습니다.”



예배부름 ..... 이사야 65:17 ..... 인도자

“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 
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”

찬 송 ..... 393장(통일 447장) 오 신실하신 주 ..... 다 같이

- 1 오신실 하신주 내아버지여 늘함께 계시니 두렵없네  
그사랑 변찮고 날지키시며 언제나 오늘이 한결같네
- 2 봄철과 또여름 가을과겨울 해와달 별들도 다주의것  
만물이 주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사랑 나타내네
- 3 내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 
오늘의 힘되고 내일의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

[후렴] 오신실하신주 오신실하신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 
일용할모든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주 나의구주

기 도 ..... 말은이

설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온 가족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이만큼이라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.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으로 많은 나라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, 우리도 모든 부문에서 점점 어려움이 더해지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. 권능의 하나님, 갈등과 반목이 해소되어 화해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여러 논의가 더욱 활발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. 힘든 사람들의 굽어진 허리가 펴지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간구합니다. 무엇

보다 새로운 해를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.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고, 믿음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.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,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

성 경 ..... 신명기 31:6-8 ..... 인도자

<sup>6</sup>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<sup>7</sup>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<sup>8</sup>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네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

말 씬 ..... “믿음의 길을 걷는 가정” ..... 인도자

찬 송 ..... 430장(통일456)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..... 다 같이

(평소에 가족/친지들과 함께 부르는 찬송을 부르셔도 좋습니다.)

- 1 주와같이 길가는것 즐거운일 아닌가 우리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
  - 2 어린아이 같은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
  - 3 꽃이피는 들판이나 험한골짜 기라도 주가인도 하는대로 주와같이 가겠네
  - 4 옛선지자 예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 갈때까지 주와같이 걷겠네
- [후렴] 한결음 한결음 주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

주기도문 ..... 다 같이

-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한 명절 보내시길 기도합니다. -

## 믿음의 길을 걷는 가정 (신명기 31:6-8)

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는 참 힘들었습니다. 올해도 여전히 위협이 되는 코로나를 비롯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어려움이 더해지는 힘든 때에 믿음으로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되길 소망합니다.

### 1. 무엇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.

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장소인 요단 동편에서 모세의 말을 듣습니다. 모세는 자신의 뒤를 잇게 된 여호수아에게 분명하게 “(이스라엘 백성들이) 요단 건너편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!”고 명령합니다. 그 땅은 지형적으로는 요단강과 여리고 성이라는 큰 장애물이 있고, 기골이 장대하고 또 잘 무장된 가나안 일곱 족속이 기거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. 그런데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곳이 “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”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.

여호수아가 가야 할 분명한 목적(지)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. 목적지가 불분명한 여행은 방향과 아주 어려움에 맞닥뜨리게 되고,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절망하게 만듭니다. 목적(지)이 분명하면 과정이 어렵더라도 목표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. ‘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!’

우리의 올해 목적(목표)은 무엇입니까? 현실은 힘들지만,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에 약속하신 분명한 목적지, 최종 목적지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.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기도의 의미이며 기도자의 태도는 분명합니다. 흔들림 없이 나아갑니다.

### 2.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야 합니다.

온 이스라엘에 “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!”고 선포한 모세는, 자신의 뒤를 이어 백성을 인도하게 될 여호수아에게 거듭 “강하고 담대하라!”고 말합니다. 여호수아는 얼마

나 두렵고 떨렸을까요.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.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자기 다짐으로는 온전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습니다.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능가하는 능력이 됩니다(고전 1:18.22-24).

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이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(히 4:12).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해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의혹에 빠지지 않는 강하고 담대함을 얻어 승리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.

### 3.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무장해야 합니다.

여호수아가 처한 외적 조건들만 보면 결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붙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‘하나님이 함께하신다!’는 믿음입니다. 하나님은 왜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말씀합니까? 그것은 “하나님이 함께 가셔서 떠나지 않으시며 버리지 않으신다!”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. ‘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한다!’(수 1:5.9).

여호수아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앞장서서 가십니다.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최고의 보물은 ‘하나님의 약속 말씀’이며,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믿는 ‘믿음’입니다. 그러므로 한 해 동안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믿음으로 무장할 때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도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.

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고,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서 2023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그리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